

이 도서관이 소형배치·컴퓨터·시스템, 대형배치·컴퓨터·시스템, 특대형 온라인·시스템을 각각 사용하여 데이터를 처리하는 경우 1개월 동안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비교 나열한 표를 만들었다. 이 비교표에는 사람만으로 하는 경우와 펀치카드·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를 참고로 삽입하였는데 가장 요긴한 데이터를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소요 경비
사람만으로 하는 시스템	19,197 불
펀치카드·시스템	16,574
소형배치·시스템	14,195
대형배치·시스템	10,340
특대형온라인·시스템	9,163

“컴퓨터를 쓰는 편이 비용이 덜 드는가?”라는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위의 비용중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사람만으로 하는 시스템의 소요비용이다.

표에 의하면 사람만으로 하는 시스템의 비용(월급총액)은 19,197불로 다섯가지 데이터 처리 시스템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즉 기계화의 시기가 성숙한 도서관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인건비는 장소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장소를 보아 조정해서 생각해야 한다. 우리 나라 도서관 직원들의 급료 수준을 미국인들의 4분의1로 보면 위의 월급총액은 4,799불이 되어 표에서 가장 경제적인 특대형라인·시스템의 비용 9,163불밖에 안되는 금액이 된다.

물론 특대형온라인·시스템의 비용도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들과 프로그래머들의 저급료를 고려하면 어느정도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람만으로 하는 시스템의 경우만큼 내려갈지는 의문이다.(유감스럽게도 이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길이 없다) 즉 모델도서관이 한국에 있다고 가정하면 사람만으로 자료처리를 해야 가장 싸게 먹힐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모델도서관의 사이즈에 견줄 도서관이 우리 나라에는 아직 없으므로 “비용이 덜 드는” 방법으로서의 기계화는 우리 나라 대학도서관계에 당분간 있을 수 없을 것이다.

## 교과서 개편에 따르는 도서관 이용지도 문제

— 공부하는 방법은 어디서, 언제, 누가 지도하려는가 —

조 재 후

(중앙시청작교육원)

### 1. 교과서의 개편

1955년도 및 1963년도에 이어서 1971년도에 우리 나라에서는 세번째로 교육과장이 개정되어 새로운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개편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국민학교의 국정 교과서는 실험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교육의 혁신적 변화와 증가, 팽창하는 취학인구에 대처하는 장기계획이 필요한 시대에는 우선 교육제도 발전의 기초가 되는 적절한 교과서는 확보하는 기획입안이 필요하다. 교과서의 질과 내용은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그 개선을 부단히 필요로 하고 있다”는 유네스코 도서현장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해방후 27년간의 새로운 교육방법으로의 개선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노력하여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은 여전히 교과서와 백록만에 의지한 획일적인 일제학습 지도방법을 탈피 못하고 구태의연한 교과서 중심교육의 태두리안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아래서 교육의 방향결정과 교제의 효과의 효과를 올리는 데 있어서 교과서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거의 절대적이라고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까닭에 평생교육(Life long Education)의 기초를 닦는 학교교육의 당면과제로서 교과서의 개편을 계기로 도서관이용지도 문제를 제기하면서 학교도서관의 역할을 다시 생각하여 보고자 하는 바이다.

2. 공부하는 방법의 지도

“새로운 교육이란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한 미래학자가 있드시 변천하는 사회 생활에 대처하는 교육으로 평생교육이 문제가 되고 있다. 폭발적으로 증가되어가고 있는 지식중에서 학교교육이라는 한정된 시간내에 지도할 수 있는 지식의 양에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시시각각으로 변하여가는 사회환경속에서 학교시대에 주입된 지식은 생활의 “힘”이 되지 못하고 생명없는 것이 되기 쉬운 것이다.

따라서 오늘 날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을 배우느냐?”는 것 보다는 “어떻게 배우느냐?”하는 공부하는 방법의 학습일 것이며, 학교교육에서는 당연히 이점에 더욱 역점을 두어서 학생들이 평생학습(Lifo Long Learning)을 통하여 평생동안 자기발전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계발하고 정보화시대를 창조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기형성의 기초능력을 육성하는데 힘을 기우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가 아직까지 극히 소홀히 하여오고 있던 “공부하는 방법”의 지도에 눈을 돌리고, “우리에게 진짜 공부를 하게하여 달라”는 학생들의 요청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공부하는 방법을 지도하는 학습개혁의 기저로서의 학교도서관의 위치를 다시 확인하고, 공부하는 방법의 지도이며 인생을 알차게 슬기롭게 살아가는 방법의 지도로서의 도서관이용지도 문제가 신중히 다루어 져야 될 것이다.

3. 도서관 이용지도

다행히 새로 개정된 교육과정을 보며는 “탐구적인 학습방법을 통하여 즐거움을 느끼며 스스로 학습하는 태도와 능력”을 기르며 “자연과 사회에 대한 이해와 문제해결 능력”을 길러 “끊임없는 자기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특히 국어과에 있어서는 “국어를 통하여 지식을 넓히고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길러서 발전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앞길을 개척해 나가는 바탕을 마련하게 한다”는데 지도목표를 두고 있다.

이러한 목표는 “목적에 따른 독서를 자주적으로 하여 필요한 정보자료를 얻고” “독서에 의하여 사회정세를 이해하며” “사회생활에 필요한 적응기술을 독서에서 배울 수 있도록 지도한다”는 도서관이용지도교육목표와 일치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 도구교과로서의 국어과 지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동시에 “공부하는 방법” 지도로서의 도서관이용지도의 중핵을 담당하여야 될 교과임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더우기 새로 마련된 “제재 선정의 기준”은 학습내용을 보충하는데 있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며, 지식정보의 증대에 대비하여 학교도서관 자료를 선정하는데 있어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도서관이용지도의 내용과 학년 발달단계에 따르는 구체적인 지도과정을 국민학교 국어교과서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도표로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도서관 이용지도 내용과 학년과의 관계

주 제	1.	2.	3.	4.	5.	6.(학년)
1. 학교 도서관의 개요			○	-----	◎	----->
2. 도서 및 도서관의 역사와 현황						◎----->
3. 도서관도덕과 독서위생			◎	-----		----->
4. 도서의 구성과 취급법			○	-----	◎	----->
5. 도서의 선택				○	-----	◎----->
6. 분류와 배열				○	-----	◎----->
7. 도서의 목록					○	◎----->
8. 사전·백과사전·색인류의 이용					○	◎----->
9. 년감·통계류의 이용					○	◎----->
10. 잡지·신문류의 이용				○	-----	◎----->
11. 인포메이션 파일의 이용					○	◎----->
12. 시청각 자료의 취급과 이용				○	-----	◎----->
13. 독서법					○	◎----->
14. 참고서목 만들기와 노트 하는법					○	◎----->
15. 교외의 독서시설·문화시설					○	◎----->



(주제발표하는 조재후 선생)

비고 : ○표는 초보적인 지도가 가능한 학년을 나타내며,  
◎표는 본격적인 지도를 하는 학년을 나타냄.